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129/200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06학년도 수능

[24~3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	霜天月照夜河明
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	客子思歸別有情
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	厭坐長宵愁欲死
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	忽聞隣女擣衣聲
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	聲來斷續因風至
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	夜久星低無暫止
고국을 떠난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	自從別國不相聞
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	今在他鄉聽相似

- 양태사, 「야청도의성(夜聽擣衣聲)」 -

(나)

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져이고
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
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려고
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

㉠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암죽 한가마는
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

㉡ 나도 입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
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

㉢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
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

㉣ 내 몸의 지은 죄 퇴같이 쌓였으니
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

㉤ 설위 풀쳐 헤니 조물의 탓이로다
 글란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어이다

임을 피쳐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
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

춘한(春寒) 고열(苦熱)은 어찌하여 지내시며
 추일(秋日) 동천(冬天)은 누라서 되셨는고

[A]

- 정철, 「속미인곡(續美人曲)」 -

(다)

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(空地) 없음을 한탄하며 뉘 집 이층에서
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.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
 같은,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엉성한 공지와는 비교가
 안 되는 참 ㉠ 훌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.

○○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장(板牆)으로
 둘러막은 목산(目算)* 범 천 평 이상의 ㉡ 명실상부의 공지가
 아닌가.

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 빛으로
 덮인 실로 ㉢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. 입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
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(人外境)의 감을 풍기는 적지
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다.

인마(人馬)의 발자취가 끊인 지—아니 그건 또 처음부터
 없었는지도 모르지만—오랜 이 공지에는 강아지가 서너 마리
 모여 석양의 그림자를 끌고 회롱한다. 정말 공지—참말이지

이 세상에는 인제는 공지라고는 없다. 아스팔트를 깔 뺏길한
 길도 공지가 아니다. 질퍽한 논밭, 임야, 석산, 다 아무개의
 소유답이요, 아무개 소유의 산꿏**이요, 아무개 소유의 광산인
 것이다. 생각하면 들에 나는 풀 한 포기나 공지에 뿌리를 내
 리지 못한다. 이치대로 하자면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
 일 보의 반 보를 어찌 옮겨 놓으리오. 오늘 우리가 제법 교외로
 산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두들
 묵허(默許)를 해 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다. 하나도 공지가
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㉠ 공지다운 공지
 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쪽 뺏고 누워서 담배나 한
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○○보
 험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. 다
 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라 잡
 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.

봄이 왔다. 가난한 방안에 왜꼬아리 분(盆) 하나가 철
 을 찾아서 요리조리 싹이 튼다. 그 닻곱 한 되도 안 되
 [B] 는 흙 위예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트는
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
 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.

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는
 없다고 좋아하였다. 그러나 두 다리를 뺏고 누워서 담배를 피
 우기에는 이 ㉡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좁다.

- 이상, 「조춘점묘(早春點描)」 -

* 목산: 눈으로 어림셈함.

** 산꿏: 산갓. 산림의 의미.

24. (가)~(다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.
- ②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.
- ③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.
- ④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.
- ⑤ 자연물에 빗대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.

25. (가)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‘달’과 ‘은하수’는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다.
- ② ‘다듬이 소리’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.
- ③ ‘바람’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.
- ④ ‘별이 낮도록’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 준다.
- ⑤ ‘서로 비슷하네’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중첩됨을 드러낸다.

26. (나)를 상소문이라고 가정할 때, (나)의 ㉠~㉣ 중에서 <보기>의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? [1점]

<보 기>

상소문은 여러 경우에 쓰는데, 그 중에는 개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있다. 이 경우 사건의 전말을 밝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기도 한다.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.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27. [A]와 [B]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[A], [B]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.
- ② [A], [B] 모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.
- ③ [A], [B]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.
- ④ [A]에는 공간적인 이동이, [B]에는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 있다.
- ⑤ [A]는 반어적인 표현을, [B]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.

28. <보기>를 통해 (다)의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할 때, 가장 적절한 것은?

<보 기>

현대인이 신경증을 앓는 까닭은 자신이 만들어 낸 바로 그 문명 때문일 것이다.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의 창고에는 오히려 빈 구석만 더욱 늘어 간다. 그리고 그 빈 구석을 메우고 타오르는 것은 율화의 불길이다.

- ① 도시적 삶이 주는 화려함에 이끌려 해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.
- ② 전통적 가치가 배척되는 근대 사회를 보고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.
- ③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.
- ④ 도시 문명에서 도피하여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다.
- 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다.

29. (다)의 ㉠~㉣ 중, 같은 장소를 가리키지 않는 것은? [1점]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30. (다)의 ‘풍기는’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? [1점]

- ① 키로 까불러서 검불을 풍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.
- ② 이국의 정취가 풍기는 아름다운 거리를 한없이 걸어갔다.
- ③ 진한 향기를 풍기는 붉은 해당화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.
- ④ 총소리가 풀숲에 숨어 있던 새들을 풍겼다.
- ⑤ 시골 길로 버스가 지나가자 먼지가 풍겼다.